

조선대 하키 “올해 목표는 전국대회 3관왕”

지난해 전국체전 8강 아쉬움
두달 동안 동계훈련 구슬땀
두 차례 전훈서 경기력 향상
첫 대회 춘계대회 우승 조준

“탁탁, 삐익, 패스 정확히, 자세 낮추고 볼 받아야지.”

6일 오전 조선대학교 하키장. 조선대 하키부 선수들이 훈련 중인 운동장은 스틱에 하키공이 부딪히는 소리와 지도하는 코치의 호루라기 소리로 요란하다.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실재없이 드리블과 패스 훈련을 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이다.

조선대 하키팀은 올시즌도 전국 대학 최강팀의 명성을 누리겠다며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2023시즌 치러질 예정인 6개 전국대회 중 3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게 목표다.

첫 단추는 오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강원도 동해 썬라이즈국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다.

조선대 하키팀은 이 대회 우승으로 올 시즌 첫 단추를 잘 꿰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지난 1월 2일부터 두 달 동안 동계훈련을 충실히 소화했다.

주장 오한솔 등 4학년 6명과 3학년 5명, 2학년 4명, 1학년 6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동계훈련을 통해 한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단련했다.

체력 훈련은 쿼터 당 15분씩 4쿼터(총 60분)로 진행되는 경기 체력에 필요한 근지구력과 슛·몸싸움 때 순간적인 힘을 써야 하는 근파워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조선대 하키선수단이 6일 조선대 하키운동장에서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전술훈련을 통해 개인전술, 세트피스, 포메이션 등의 개인 경기력도 향상시켰다. 두 차례 전지훈련(2월6~11일 동해, 2월20~22일 김제)도 실시해 국가대표 후보팀, 상무, 김해시청, 성남시청 등과 연습 경기를 통해 팀 전술과 조직력, 실전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개학한 지난 2일부터는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평일엔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선수들 각자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평일 수업 종료 후엔 하키에 필요한 전문체력을 키우는 데 매진하고 있다. 금·토·일요일엔 팀 전술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 유지에 힘쓰고 있다.

조선대 하키선수단이 휴식도 마다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성적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최근 7년 간 각종 국내대회에서 가장 많

은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대학팀 최강자로 우뚝 선 조선대 하키는 지난해 목표로 삼은 3관왕 달성에 실패한 데다 전국체전 8강에 머무른 게 아쉬웠다.

조선대 하키는 지난 2016년 3차례 우승(제59회 중별하키선수권·제30회 대통령기·대학실업연맹회장배)과 1차례 준우승(KBS배)을 차지하며 하키 명가로 발돋움했다.

이후에도 매년 우승컵을 수집했다. 2017년 제36회 협회장기, 2018년 KBS배·37회 협회장기·대학실업연맹회장배, 2019년 KBS배·38회 협회장기, 2020년 KBS배·39회 협회장기·63회 중별선수권. 2021년 40회 협회장기·대학실업연맹회장배 등에서 정상에 섰다.

지난해에도 2개 대회 우승(춘계대회·36회 대통령기)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우

승을 목표로 한 협회장기와 중별선수권, 대학실업연맹에선 입상도 하지 못했다. 또 메달을 노렸던 10월 전국체전에서 국내 최강 실업팀인 성남시청에 발목(1-2패)이 잡히며 8강에 머물러 아쉬움이 컸다.

조선대 하키팀은 올해는 3관왕과 전국체전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비 라인에 포진된 오한솔, 류인환(이상 4학년)과 주니어 국가대표 임도현(3학년)의 빌드업 능력에다 공은호, 김민권, 이성민(이상 3학년) 등 주니어 국가대표들이 포진된 미드필드 라인의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은 국내 대학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황규동, 백성현(이상 4학년) 등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를 갖춘 공격수들을 갖추고 있고 정준성, 황규동(이상 4년), 임도현(3년) 등 대학 최고의 페널티코너

슈터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앞세워 올 시즌 3관왕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주장 오한솔은 “조선대 하키는 항상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나아가는 팀이다. 팀원들이 선배가 아닌 동료로서 하나가 되는 팀이 돼 팀워크는 물론 분위기도 좋아 올해는 3관왕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이승일 코치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동계훈련기간 선수들이 모든 훈련을 잘 소화해줘 기대가 된다. 올해 출전한 모든 전국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게 선수들의 의지다. 올시즌 첫 대회인 3월 춘계대회부터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동한 기자**

전남도청 최세빈, 아테네 여자 사브르 월드컵 은메달

전남도청 펜싱 사브르 최세빈이 국제펜싱연맹(FIE)월드컵 여자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 국제대회 3연속 입상 성적을 거뒀다.

최세빈은 6일(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FIE 월드컵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전은혜(인천중구청)·전하영·윤지수(이상 서울시청)와 팀을 이뤄 출전해 은메달을 합작했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 카자흐

스탄(45-33 승)과 8강전 불가리아(45-41 승), 4강전 독일(45-25 승)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결승에서 펜싱 중주국이자 사브르 단체전 세계랭킹 1위인 프랑스에 29-45로 석패했다.

최세빈은 지난해 11월 알제리 월드컵 동메달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월드컵 동메달에 이어 이번 아테네 월드컵 은메달을 획득하며 3연속 국제대회 입상 패거리를 거뒀다. **최동한 기자**

화순고 배드민턴 연서연, 네덜란드 주니어오픈 혼복 금빛 스매싱

박범수와 金... 여자복식은 銀

화순고 배드민턴 연서연(2년)이 2023 네덜란드 주니어오픈 혼복복식에서 금빛 스매싱을 날렸다.

연서연은 지난 1~5일 네덜란드 하를렘에서 열린 이번 대회 혼복복식에 박범수(당진정보고 3년)와 호흡을 맞춰 금메달

을 목에 걸었다.

연서연·박범수 조는 혼복복식 결승에서 주이준·황게신(중국) 조를 세트점수 2-0(21-15 21-17)으로 이겼다.

연서연은 박슬(영덕고 3년)과 조를 이뤄 출전한 여자복식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연서연·박슬 조는 여자복식 결승에서 리코 키요세·리리나 히라모토(일본)

조에 세트점수 1-2(10-21 21-13 21-23)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한국 주니어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복식 동메달(김민지·김민선), 여자단식 금메달(김민지)·은메달(김민선), 남자복식 동메달(조현우·이종민)을 추가하며 총 금 2, 은 2, 동 2개를 획득했다. **최동한 기자**

금호타이어, 김진표 엑스타 레이싱팀 명예감독 위촉

새 감독에 신영학 운영총괄 팀장

금호타이어는 지난 10년간 엑스타 레이싱팀을 이끌었던 김진표(사진) 감독과 협의를 통해 신영학 운영총괄 팀장을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 2023년 시즌 준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김 감독은 명예감독으로 위촉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5년 국내 카레이서로 입문해 2009년, 2011년 CJ슈퍼레이스에서 종목 챔피언을 지낸 김 감독을 2014년 선임하고 일본 출신의 전 F1 드라이버 이대유지 선수, 정의철 선수 등이 포진한 엑스타 레이싱팀을 창단한 바 있다.

김 감독은 “10년간 함께한 엑스타 레이



싱팀, 금호타이어의 모터스포츠 관련 모든 임직원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새 감독님과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이 최고의 레이싱팀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상 금호타이어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지난 10년간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을 위해 헌신해 준 김진표 감독에게 감사한다”며 “공식적인 인연은 끝났지만 금호타이어는 앞으로 김진표 감독이 걸어갈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시체육회 스쿼시팀, 전국실업선수권 종합 준우승

광주시체육회 스쿼시팀이 제7회 광주광역시장배 전국실업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광주시체육회 스쿼시팀은 지난 2~5일 광주시체육회관 스쿼시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자단체전 준우승과 남자단체전 6위를 기록하며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가혜·배찬미·송동주로 구성된 광주시체육회 여자스쿼시팀은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경남도체육회에 0-2로 져 준우승했다.

광주시체육회 여자스쿼시팀은 8강전과 4강전서 각각 대전시체육회와 전남도청을 2-1로 꺾은 뒤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지난해 6회 대회 결승에서 1-2 패배를 안겼던 경남도체육회였다. 광



주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설육전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박경민·오민재·조연후가 출전한 광주시체육회 남자스쿼시팀은 6위를 기록했다.

부전승으로 1회전을 통과한 광주시체

육회 남자스쿼시팀은 16강전에서 울산시체육회에 0-3로 져 5-8위 순위 결정전으로 밀렸다.

광주시체육회는 5-8위 순위결정전에서 인천시체육회를 3-0으로 제압했으나 5-6위 순위결정전에선 경남도체육회에 0-2로 졌다. 부산시체육회는 남자단체전 결승에서 충북도체육회를 2-1로 꺾고 우승컵을 안았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여자단체전 우승과 남자단체전 5위를 기록한 경남도체육회가 차지했다.

박세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안방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광주시포츠과학연구원의 컨디션 지원이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와 기량 향상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더욱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